

부안지역 여중생 고교 선택기회 확대

부안여상, 일반고 2학년 신설 · 교명 변경 추진 · 부안여고, 7개 학급→4개로 조정

전라북도교육청이 부안지역 여중학생의 고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래 부안여고 7개 학급을 4개로 조정하는 한편 부안여자상업고에 일반고(보통과) 2개 학급을 신설하는 '부안여상 여자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상급계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상급계 학급을 1개로 축소하는 대신 일반고 2개 학급을 신설한다.

또 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여자고등학교는 입학지원 자연 감소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4개 학급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안교육지원청은 부안지역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교명 변경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안 지역 체육교사의 성추행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큼 사안이 심각해져다 여자 일반계 고등학교가 1곳뿐이어서 여중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부안여중 졸업생 82.2%가 동일 재단 소속인 부안여고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이 성추행사건을 구조화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생배치계획에 부



청소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 없앤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대행업체의 역량강화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여나가기로했다. 시는 지난 7일 올해 새로 선정된 12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지역의 입학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부안여고 학급수를 3개 감축하는 대신 부안여상에 2개 학급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인 학급수 1개를 줄이는 조치를 내렸다.

부안지역 여학생 졸업예정자는 올해 233명이나 ▲2018년 181명 ▲2020년 178명 매년 줄어든다. 여기에서 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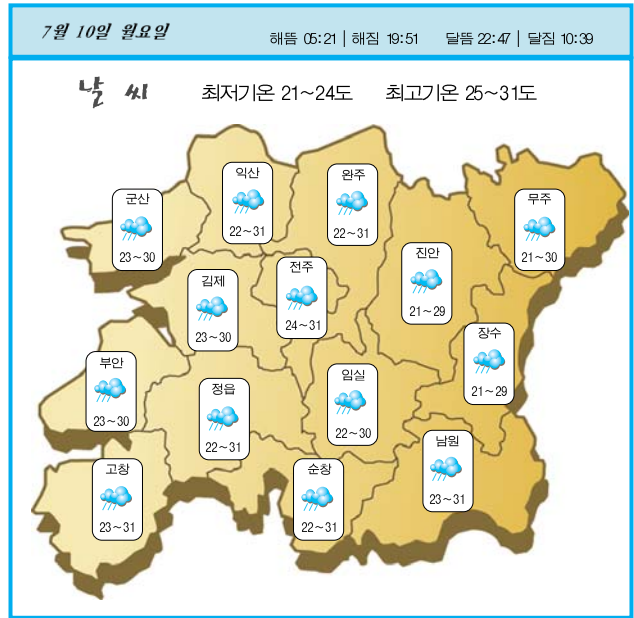
지역 여학생의 70%가량이 관내 여자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개 학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고 교원 배치, 일반고와 상업계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학과 개편과 교명 변경 신청을 할 계획이며 부안교육지원청은 공립 여자 일반고 설치에 따른 부안지역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영어봉사장학생초청 TaLK 프로그램

도교육청, 농어촌 · 구도심 초등학교 51교 배치 운영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재외동포 및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대학생 또는 졸업생을 영어교육 봉사 장학생으로 선발·초청하여 농어촌 초등학교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치고(Teach),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학습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도록 하는(Learn) 프로그램이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원어민장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갖도록 하여 귀국 후에도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간 홍보 사절 및 미래의 친한 글로벌 리더육성이라는 TaLK 프로그램 목적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2차 3일간 경주 문화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원어민장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40명의 원어민장학생을 보내 농어촌 초등학교 및 구도심 초등학교 51교에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원어민장학생의 교수능력 향상 및 학습자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한 프로젝트형 수업연구 공모대회에서 부안초등학교 원어민장학생 25명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3주간의 국내연수를 받고 전라북도

2017년 상반기 신규 원어민장학생 25명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3주간의 국내연수를 받고 전라북도

도에 배치되어 지난 2월 21일부터 4일간 사전연수를 받았다.

연수 기간 동안 보내 초등영어교육 현장 및 다양한 영어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전주한옥마을을 체험한 후 보내 초등학교 25교에 배치되어 초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이 많은 원어민장학생과의 수업을 통해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없는 도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영어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해은기자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 본격 운영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 청소년들 '놀 권리' 회복

전주시, 창의력과 자기주도력 키우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본격 운영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8주간의 1기 프로그램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12주 과정의 2기 프로그램 등 총 2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자녀 청소년 프로그램기회확대로 참여했던 아들이 꼭 참석하고자 한다고 해서 참여하도록 허락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야호학교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됐고, 야호학교를 통해 성장하게 될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호학교에 진행되는 모든 청소년 자치프로젝트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팀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활동성과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 소년과장은 "전주시는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 특별 길잡이 교사나 팀 프로젝트 활동기, 지역 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플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탐색과 함께 함께하는 기쁨을 배우는 공동체 의식 내고장 전주에 대해 정보 등을 수집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편 야호학교는 아이들을 살리는 올바른 교육에 대한 비관과 고민을 모아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형 창의교육으로, 지난 1년여간 전주시와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준비해왔다.

이를 통해, 그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학습만 해오던 청소년들이 작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창의력과 자기주도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야호학교는 아이들을 살리는 올바른 교육에 대한 비관과 고민을 모아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형 창의교육으로, 지난 1년여간 전주시와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준비해왔다.

/인재홍기자

도교육청, 지역별 찾아가는 행정실장 리더십 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행정실장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자로서의 자기 성찰 및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은 업무차원에 대한 부담감과 연수기관까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연수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11~12일 완주를 시작으로 13~14일 정읍 17~18일 군산, 19~20일 전주에서 실시되며 각 지역별 6급 행정실장 20~28명이다.

교육 내용은 ▲팀워크 조성 ▲의사소통 ▲조정·통합 ▲성과창출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한편 도교육청은 행정실장 리더십과정 교육을 위해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연수결과를 평가해 내년에는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13일 최유준 음악평론가 초청 특강

전북도교육청이 7월 전북교육이카 데미에 최유준 음악평론가를 초청해 오는 13일 오후 7시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특강을 갖는다.

최 유준은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학원연구원 HK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크리스토프 스펠 음악하기, 대중

최 유준은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학원연구원 HK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크리스토프 스펠 음악하기, 대중

의 음악과 공감의 그늘, 지식인의 표상 등의 저서가 있다. 최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면서 음악을 통한 인문학을 이야기한다. 전북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정해은기자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백두대간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